



이것은 멜빈목사님의 첫번째 책과, 그 책을 가지고 사역해 온 저의 글을 월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냐 멜빈대학교를 위해서는 영어로 만들고, 한국에서는 한글판을 만듭니다.

[2025년] 4월

## 평신도목회LPM과 PACE사역

평신도목회LPM/PACE는 1978년 미국의 멜빈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평신도의 목회적돌봄"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 평신도들은 지금까지 목양사역을 (PASTORING)해 왔다

평신도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지난 수세기 동안 타문화권에서 선교까지 해왔다. 그런데 왜 목회(목양)는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여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평신도들도 목회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각성시키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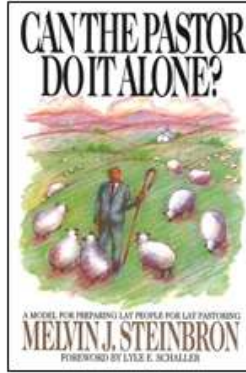
안수받은 목사만이 목회하기 위해 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도 역시 성령에 의해 은사를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 평신도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돌봄의 사역을 진짜 목회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 은사를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조직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목회의 정의와 목회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밝히겠다.

### 평신도들은 지금도 목양사역을 하고 있다(PASTORING)

칼리지힐 장로교회의 평신도들은 지난 8년동안 평신도목회라고 하는 조직안에서 순수하고 호 과적인 목회를 해 왔다. 다음과 같은 여러교회에서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언급하는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미조리주 켄사스 시의 제2 장로교회, 미시간 주의 그랜드 레피즈 시의 웨스터민스트 장로교회, 테네시 주의 낙스빌에 있는 시다 스프링 장로교회, 오하이오주 벨록의 베델 루터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제일 장로교회,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채플 락 크리스천 교회, 워싱턴 DC의 트루로 회중교회 등등이다. 수년동안 우리는 이 목회사역을 해왔고 다른 여러교회와 이 사역의 경험들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 목회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는 목사나 평신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였다.

### 평신도들(LAY PEOPLE)은 목양사역을 하고 있다(PASTORING)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목회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때에,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동료 중의 하나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동일시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였다. 그는 평신도에 대해 목회를 돕는 자나 목회의 자원봉사자나 혹은 다른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몰라도,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정말로 그래서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역자라고 하는 명칭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파송받은 평신도가 목사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목사들과 똑같이 돌보고, 목사들과 똑같이 방문하고,



© copyright 1987



© copyright 2001

목사들과 똑같이 목양적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목사들과 똑같은 사역을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평신도들도 목사들과 똑같이 목양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신도들의 목양적 은사가 안수받은 많은 목사들의 은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이 목양사역에 부름을 받아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그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협동목사인 제리 RR. 컬크와 로널드 R. 랜드와 8명의 다른 스탭진들과 이 사역을 위해 임명된 장로그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평신도를 목회자로 세우는 훈련센터로 부르신 것을 믿고 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목양사역은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외에 두가지 사역이 더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랜드 박사가 개발한 전도임상훈련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게리 R. 스위튼 박사가 개발한 역동적인 제자 훈련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 목양사역을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온 수 많은 평신도들과 목사들을 훈련시켰다. 우리는 훈련센터로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누가복음 12 장 48절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요절로 채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의 은사는 풍성하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신도사역자로 준비시키고 이런 목회방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센터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논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리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교회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

(번역감수: 김상복목사)





### (양육을 위한 네트워킹)

그것은 서로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서로 가까워짐으로써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이 네트워킹의 첫번째 이유이다. 네트워킹을 통해 그들의 강점과 약점,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역에서 약점이 있다면 대처할 수 있다.

나는 네트워킹의 주요 업무가 서로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네트워킹의 목적은 소식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주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서로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사역진행을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각 단계에 훈련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 새 신자 훈련, 2) 양육 훈련, 3) 제자 훈련, 4) 사역훈련 등이다. 그들은 몇 주간의 훈련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단계마다 12주씩 진행된다.

그러나 양육은 사역의 측면에서 좋은 네트워킹에서 비롯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사역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료, 직원, 스태프, 전화 통화, 그리고 그룹 역할, 워크샵 등등.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을 받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고 자료들을 봐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들은 훈련매뉴얼, 교실강의, 코스워크에만 의존하다 보니 자격증만 주어지고, 또 자격증이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1, 2, 3, 4단계의 진행과 훈련과정에 만족한다. 나는 그 교육 과정을 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교실, 책, 훈련 매뉴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은 채워주고, 우리에게 약간의 신선함을 주긴 하지만, 아마도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 (뒷문을 다시 열라)

미국에는 크게 두 개의 돌봄 사역이 있다: 멜빈목사님의 LPM과 케네스 호크의 스테반 Stephen Ministry이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이것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어떤 교회들은 이 두 개의 사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스테반 사역의 주요 교과서는 "뒷문을 다시 열라"(저자, 케네스 호크, 스테반 사역 설립자)이다. 나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 번 사용했다. 그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훌륭한 훈련매뉴얼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위기관리 사역이다. 그 훈련 매뉴얼에서는 사람들이 수년간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33가지 이유가 적혀 있다.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유용하다. 주된 이유로는 1) 사람들과의 관계성 결여, 2) 교회생활의 무의미, 3) 소속감에 대한 결여이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는 "뒷문을 다시 열라" 책을 썼다, 스테반 사역자들을 훈련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뒷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교회의 약 40%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만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대부분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뒷문을 너무 일찍 닫는 오류를 범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뒷문을 다시 열고,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격려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책은, "뒷문을 닫아라."가 있다. 곧, 또는 조만간에 교회를 떠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명성훈박사 지음), 그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뒷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두 권은 흥미롭다. 하나는 떠날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최근에 떠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평신도목회(LPM)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뿐만 아니라, 방금 떠난 사람들도 계속 돌보아야한다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

### (평신도목회자와 다른 교인들)

이 사역에는 평목들과 다른 교인들 사이에 또 고려사항이 있다. 한쪽은 주고 싶어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 다 잘 작용되어야 한다. 평목들은 오래 교인들에게 목회적돌봄, 즉 PACE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평목이 자신을 돌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평목은 진짜 목회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목의 자질을 강조해야 한다. 일단 그들이 '평신도목회자'라고 불리면, 그들은 이 지위, 역할, 기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절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12월 말에 직함을 주고, 그 다음 해를 위한 '임명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교회에서 받은 증명서가 여러 개가 되고, 다른 교회를 다녔어도 그 이전 교회들에서 받은 임명장이 수도룩하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일은 교회마다, 사람마다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목이 되면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므로, 이전에 받은 자격증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PACE 세미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임명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파송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 파송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약 25년 전에 멜빈 목사님으로 이 파송장을 받았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고,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 하라고 파송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파견된 평목들도 그들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담임목사의 태도)

목회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들의 할 일은 전체 교인들을 위한 전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실함, 끈기, 순수함, 등등. 교인들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자질을 갖추기를 기대하듯이, 평목에게서도 이런 자질을 찾지 못하면 바로 실망한다.

진지함: 사역에서도 담임목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즉 최고경영자인 목회자들이 이 사역에 대해 진지하다면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진지한 사역이라고 느끼겠지만, 담임목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교인들도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관리하면서 보여주어하는 것은 두 가지, 즉 어떤 모델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 먼저 PACE를 해야한다.

물론 멜빈목사님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저항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관한 소논문에서 이것을 썼다. 이 문제들은 담임목사에게도 오는데, 그 말은 그가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는 모든 회중에게 평목들이 돌봄에 대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즉 담임목사와 같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번뿐만 아니라, 혹은 몇 번의 설명만으로는 그것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담임목사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설교할 때, 또 어떤 경우든, 강의할 때, 성경공부 시간에도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보라. 수년 내내 매주일마다 PACE 사역에 대해 말하고, 설교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이런 정책까지 만들었다. PACE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셀 리더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약 1만 명의 교인들은 이것을 꼭 마쳐야 한다고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그 교회는 PACE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에도 효과적이었다.●



## (사역의 확장)

이 사역은 다른 사역들로 확장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교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저자 리 워런, 미국 새들백교회)라는 책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 했는데, 자신의 교회에서는 맞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물론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철학이 100명 모이는 교회에 맞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PACE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그는 평목들에게 새들백의 목회철학을 적용하려고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평목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때문에, 어떤 자료든 전략이든 수용이 되고,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멜빈의 평신도목회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했고, 이 목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 스태프 중 한 명은 이 사역이 다른 사역으로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Ministry engine" 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평신도목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배웠고, 교인들도 이 사역이 효과가 있다고 보며, 어떤 사역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역은 돌봄 사역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노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도움과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싱글 사역과 (single ministry)같이, 그런 사역들을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제 눈을 뜬 것이다.

## (평목과 담임목사의 다른 은사)

"뒷문을 다시 열다"(케넷 호크, 스테반사역 설립자)라는 책을 보면, 케넷은 평신도사역자와 담임목사, 즉 목회를 직접 하는 평목들과, 그 목회를 관리하는 담임목사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격려의 은사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역의 관리자에게는 리더십과 가르침, 그리고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맞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어떤 담임목사는 돌보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어떤 평목은 가르치는 것, 리더십, 행정 에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평목들은, 평목의 목사로써, 또는 사역리더그룹(MLG)에 소속되어 관리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각각이 가진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목사들 몇몇은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내 말은 그들이 돌보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문화, 좋은 모델, 하지만 리더십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나는 대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만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담임목사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평목들이 돌보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이 사역의 지도자로서 가르침의 은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서로 보완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

두 가지 은사는 정반대이다. 내 말은 멜빈목사님이 이미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아주 다른 은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두세개의 주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측면의 은사를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돌보거나 가르치는 것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지고, 그것은 주님의 각별한 은총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각 사람은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돌보거나 아니면 가르침. 그들이 그들의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사역은 극대화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소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갈고 닦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은사와 기술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돌봄과 가르침의 두 가지 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돌봄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접근법이다. 돌봄에는 많은 자질과 요소가 있고 대부분은 따뜻하지만, 가르치는 것/구비시킴은 훈련 스타일이고, 돌봄보다 너무 차갑고, 접근하는데 더 엄격하다.

어떤 면에서 나는 이 음/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드럽고 단단하며, 사랑과 규율. 담임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 (평신도목회의 관점에서 본 교회)

나는 개 교회에서 평신도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주요 두려움은 성도들의 에너지가 교회 자체보다 교회 바깥에서 사용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들의 에너지를 교회 내부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 보통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작은 교회는 교회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내부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들은 오직 교회 안의 봉사만을 생각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평신도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평신도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신도의 관점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교회가 지난 1세기 동안 평신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누군가 말했듯이 3P; 즉 평신도들은 교회 와서(presence), 기도하고(pray), 헌금 내고(pay),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

그 때문에 평신도는 전문성이 없고, 어떤 방면에 전문가들도 없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신학교는 담임목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일야 평신도가 목양, 성경 공부 지도자, 셀 리더, 벤드 사역, 평신도전도사, 평신도 선교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과 목사들 양쪽 모두가 그런것을 두려워한다.

## (우리교회에 맞는 시스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평신도사역이 있지만, 우리 LPM은 평신도목양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평신도사역보다 좁의 의미이고, 또 교인들을 위한 기본 사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사역을 더 생산적으로 하고 싶다면 멜빈이 언급했듯이, 사역의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평신도들에 의한 회중적인 돌봄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LPM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일대일은 PACE사역이지만 전교회적으로 전개하는데에는 시스템(LPM)이 필요하다. 마치 나무와 숲과 같은 개념이기도 하다.

평신도사역에는 "Market 신학" 이라고 불리는 약간 급진적인 접근방법, 다른 측면이 있긴 하다. 캐나다 리젠트 대학의 폴 스티븐스 교수이다.

그 밖에 미국에는 Missional church, 영국에는 Mission Shape가 있다. 나는 그것들이 괜찮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전통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들 중 일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정말 좋지만, 개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 (평신도목회와 함께하는 교회성장)

목회자들로부터 이 사역이 교회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내 자신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많은 분이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목회자로서 우선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1) 이 사역을 통해 교회 성장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2~3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2~3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PACE 교회들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3~4년 동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만 하고, 내 말은 최소 1년이 안 돼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다.

적어도 1년 이상 이 사역을 하면, 기대한 열매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개인성숙하고 그 다음에 교회성장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교회의 성장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런 순서가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말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역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역은 돌봄사역이지 교회성장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핵심개념을 놓치면, 최종 목표인 목적지, 즉 교회성장이 핵심개념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 돌봄자체가 이 사역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핵심 개념조차도 사역의 일부분이다. 내 말은,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 어쨌든, 전국적인 이 사역의 책임자로서, 나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교회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것에는 세 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 멜빈목사님은 PACE 사역에 추가할 것들에 대해 관해 썼는데 몇 가지 질적인 측면/성품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이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PACE 에 이 추가를 통해 그것은 성숙하고 천천히 성장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변화 즉 조직의 변화, 그리고 교회 성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어쩌면 멜빈목사님의 전략? 특히 그는 '평복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요소들을 썼다.

둘째, 할렐루야교회가 그렇다. 사실 그 교회는 이미 6,000명의 교인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성숙해졌지만, PACE 사역을 통해 문화와 사역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PACE 는 간접적으로 그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그들이 PACE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 교회 문화는 마침내 그렇게 움직였다.

셋째, 서울 시내에 있는 Rock church의 박목사가 그 사례다. 박목사님은 우리 스태프의 중 한 명이다. 그는 설교에 매우 재능이 있었고, 또한 PACE 사역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회는 10년 이상 PACE 사역을 했으며, 여전히 그의 성도들에게 PACE 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PACE 사역이 모든 곳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 일반적인 회사들, 교도소 까지 였다. 그의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 나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가! 질문도 해보았는데, CPE(임상목회교육)를 통해 목회적돌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 조금은 성숙하고 스스로 성장했다고 확신한다. 어떤 면에서 CPE 는 나를 어느정도 훈련했지만, 그것은 PACE 사역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사역 여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여기서 전자(CPE), 후자(PACE)는 둘 다 훈련되고 발전된 돌봄 기술이고 개념이지만, 멜빈의 실제적 돌봄시스템은 돌봄 기술의 확장이며, 또한 일반인의 돌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평신도목회자가 되는 것)

나는 평신도목회자가 되는 것, 즉 "진짜" 평신도목회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 교회와 우리 스태프 중 한 명인 장 목사가 교회에서 훈련과 구비시키는 과정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1) 신입회원, 2) 훈련, 3) 제자화, 4) 평신도목회자. 그들은 교회가 평신도목회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신도목회자를 마지막 단계에 두었다.

여기서 평신도목회자에 관해 얘기하겠다. 보통 그들은 성숙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는 그들에게 평신도목회자가 될 것을 권한다. 그렇다, 사실이다. 그들은 다른 교회 동료보다 뛰어나지만, 어떻게 그들이 자격을 갖춘 평신도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직책이나 임명, 심지어 직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직함을 주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다. 내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첫 번째 자질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극복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그리고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고 적응해간다.

물론 자기중심적인 것과 현명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비록 평신도목회자가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되지만 현명해지는 것은 오늘날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

### (평신도목회의 본질)

이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님의 부름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LPMI USA의 이사진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그들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역에 소속되어 있다. 왜일까? 그들은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이 이 사역의 실질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여기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은 확실한 대답이고 정확하다.

또 다른 본질은 교회의 성장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있는 나무는 자랄 것이고,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이 도와야 한다.

다른 문제는 교회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교회에 좋은 문화가 없다면, 실제로 이 사역을 통해 그들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 중심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하신다며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면, 돌보고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셨고, 멜빈목사님이 이것을 대현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벤전 5장 1~4절에서 더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율법의 이행이다. 그래서 LPM은 이 명령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 요소들이 평신도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

### (나가랜드에서 온글, 신학교학장)

안녕하세요!

PACE에 대해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네 개의 알파벳 PACE는 목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목회사역은 단순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돌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양을 돌보라고 세 번 연속으로 말씀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PACE를 아주 간단한 단어로 이해하면 '돌봄'입니다.

돌봄이 없는 목회사역은 결코 목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돌봄사역입니다. PACE는 방정식과 대수학을 풀기 위한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PACE의 장점은 교파의 교리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PACE는 단순히 동료, 즉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봄이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돌볼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돌봄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저의 고국인 인도 나가랜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운영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가랜드의 교회는 돌봄 사역에 있어서는 전무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재정적 성장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 LPM 대표 서병채목사님과 카핑박사님으로부터 PACE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가랜드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목사님과 카핑박사님으로부터 훈련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나가랜드로 돌아왔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사역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자체운영과 유지에 너무 바빠서 돌봄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PACE를 통한 교회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ACE 없이는 사역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유일한 자질은 사역을 위한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PACE 사역의 아름다움은 평신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사역을 한다는 점입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이나 공로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유일한 자격은 사역을 위한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PACE 사역이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나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소명입니다.●

알로토 안체 (Ph.D)  
LPM 인도 책임자 및  
나가랜드 PACE신학교 학장

## (미국에서 온 글, PACE사역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름은 수잔 컬더이고 평신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수년간 PACE사역에 참여했고 평목협회의 이사회에서 5년 동안 봉사했으며, 평신도목회 사역의 창립자인 멜빈 스타인브론 목사님과 초창기에 함께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 교회로 옮겼고 더 이상 평신도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때 배운 PACE사역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와 목회자, 또 동료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앞장서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각자 다른 은사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소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신도목회자로 부르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준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모든 축복, 기쁨, 도전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그분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목양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양떼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며, 회중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신도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피부에 와 닿는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때 필요한 용기와 겸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 소명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을까?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혼자하기는 힘듭니다. 목회자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평신도목회는 교인들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목회자의 방문을 기대하도록 문화를 조성합니다. 자신이 아플 때 목회자가 방문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미리 알게 해줍니다. 또한 목회자 혼자서 교인 전체의 짐을 지려고 하는 목회자는 소진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에 아픈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100명, 1000명의 성도들의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상상할 수 있을까요? 너무 벅차죠.

교회의 목회자는 누가 좋은 평신도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3:1-7은 목회자(교회 리더십에 있는 모든 사람)만큼이나 평신도목회자에게도 좋은 자격 요건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사역자는 어쩌면 담임 목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성령의 분별력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노련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강하고 간증이 풍부하며 평판이 좋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가르칠 줄 알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평신도목회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봉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면 사역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평신도목회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바쁜' 일정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이던 모임이 매월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자리가 생기면서 손주들을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이웃 노인이 사망했을 때 그녀는 기꺼이 소명을 받아들였고 평신도목회자가 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평신도목회 사역을 통해 그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신도목회는 성경에 근거한 사역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양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95%가 보험내용 자체보다도 보험설계사의 인성(personalities)에 감동되어 가입한다는 통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세일즈를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사실 그런 세일즈, 즉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물건을 사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런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신학생 때에 아르바이트로 세일즈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책 장사를 해보았고, 물건을 팔아본 적도 있다. 학비를 벌어보고자 했다. 그 방면에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결국, 하나도 못 팔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뭘 판다는 것은 매우 힘든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관계성(rapport)"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본다. 상호이해, 신뢰, 합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멜빈대학

## 좋은 인성(personalities)

교의 설립에 동기부여 해주신 멜빈목사님도 평신도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에 대해 쓰신 적이 있다. 그분이 말하는 good rapport란 상호간 마음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했는데, 하모니, 조화, 친숙함, 더 나아가 유사성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다.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성격, 다른 사람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 항상 동의하지 않는 성격, 늘 불화를 만드는 성격. 이런 성격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다분하다고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협상을 잘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성격,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스티븐 코비의 책을 몇 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가 말하는 결론은 성품(Character)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측면에서, 많은 예화를 들었다.

좋은 성품은 개발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성격은 안 변해도 성품, 태도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공부, 훈련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라 본다. 대개 남에게 안 좋은 성격을 가진 분들을 보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상황과 환경 탓에 그렇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학생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 Teachable란 말 있지 않은가! 가르쳐서 될 사람인가, 또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가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팀에서 스텝을 뽑을 때도 FAT라는 머리글자를 쓰는데 Faithful, Available, 그리고 Teachable이다.

그러면 좋은 성품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우선 본인,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매우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니 이중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일 처리나 모든 관계성에서 왜곡된 표현, 처신을 보여주게 되니 삼중, 사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해를 주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 Melvin University (with alumnus) Kenya Africa since 2021



# PACE Int'l Seminary (with alumnus) Nagaland India since 2015



## 멜빈대학교

**Melvin University**  
P.O. Box 183  
Zip Code 40222-Oyugis  
Homa Bay County  
Kenya, Africa  
Tel: +254-113-760477  
[www.melvinuniv.org](http://www.melvinuniv.org)



## PACE 신학교

**PACE International Seminary**  
Sangtamtila Village  
Rangapahar crossing  
Dimapur-797112  
Nagaland, India  
Tel: +91-70056-02847  
[www.pisnagaland.org](http://www.pisnagaland.org)

